

“정유업계 이미지개선 대국민홍보 강화되고 있다.”

석유협회는 최근 정유업계 이미지개선노력의 일환으로 TV, 신문광고를 통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.

석유협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KBS, MBC 등 TV를 통해 에너지절약광고를 주유시간대에 스팟으로 방영하고 있다. 또한 지난 6월 6일자 경향신문과 6월 21일자 세계일보에 각각 8단과 5단의 에너지절약특집광고를 게재했다.

TV 광고는 부끄러운 석유소비증가를 세계 1위, 석유수입량 6위, 석유소비량 10위 등 우리가 평소에 무시해 지나쳐 왔던 석유낭비현황과 석유절약의 필요성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일깨우는 공익성 내용으로 비주얼 및 표

현차별화면에서는 시끄러운 많은 광고들속에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소중한 석유가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는 효과음을 위주로 하고 성우의 나레이션 없이 차분하게 자막을 통해 석유낭비에 대한 자료들을 눈에 잘 띄도록 처리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광고 후반부에 비로서 성우가 『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-석유를 아깝시다』라는 가슴 찡하게 울리는 나레이션으로 끝을 맺고 있다. 특히 이 광고는 비주얼 및 표현차별화면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

한편 석유협회는 주유소상표표시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아일보, 조선일보 등 14개 일간지 및 경제지에 주유소상표표시제 시행안내광고(5단)를 대대적으로 게재했으며 정유 5사는 홍보팜프렛 1백66만매를 제작, 전국 주유소에 배포했다.

